

“코로나 확산 불확실성 잠재”... 기준금리 연 0.5% 유지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완화 기조
올해 경제성장률 4% 수준 제시
1분기 GDP 전기대비 1.7% 기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수준인 연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시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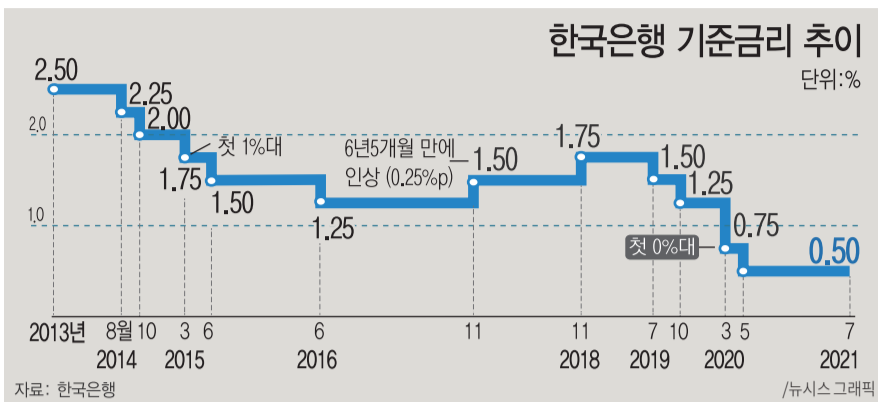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춘 뒤 그해 5월 0.5%로 인하했다. 이번에도 동결을 결정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어 통화정

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전개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올해 GDP 4%수준일 것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월 전망치와 같은 4% 수준으로 제시



했다.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소비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춤할 수 있으나 추경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7%를 기록해 1%초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예측을 뛰어넘었다. 기업(BSI)과 소비자(CSI)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에 계절 및 불규칙

인을 제거한 ESI순환변동치는 6월 기준 109.3으로 2011년 4월(109.5) 이후 10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2.4%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시기, 10월 이후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는 오는 10월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통화위원회 오는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월을 제외한 10월과 11월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면서도 “국내 주택,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평가시 소득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평가돼 있고, 국내 주택가격 상승이 부채증가와 밀접히 연결돼 있던 점,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높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늘어난 유동 자산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중견기업, 3년간 기술 등 인재 2.1만명 채용

한국중견기업연합, 인력현황·채용전망
건설·토목 5700명, 전기 4500명 등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향후 3년간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총 2만1000명 가량의 인재를 채용할 전망이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건설·토목, 전기·전자, 기계, 소프트웨어 분야가 많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내놓은 ‘중견기업 생산·기술·연구 인력 현황 및 채용 전망 조사’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80개 응답 기업의 향후 3년 간 생산·기술·

연구 인력 채용 예상 규모는 평균 18.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5007개 중견기업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1108개사를 기준으로 추산한 향후 3년 간 해당 부문 채용 규모는 약 2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채용 규모는 건설·토목 분야가 5700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4500명), 기계(3400명), 소프트웨어(2100명)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학사 1만4000명, 석사 4300명, 박사 27000명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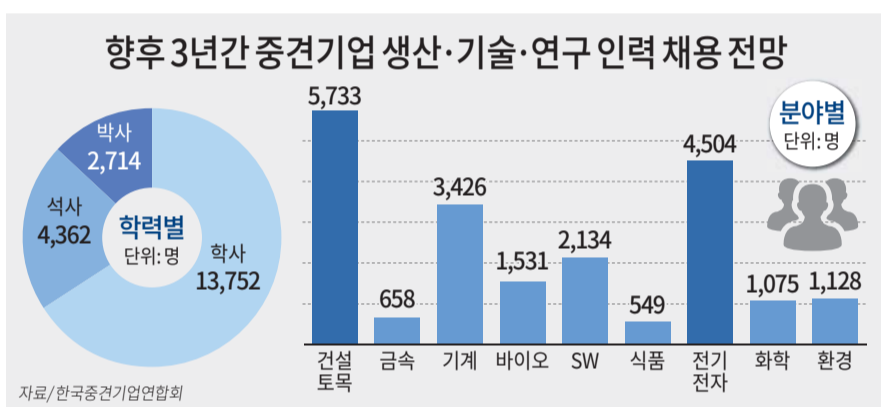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중견기

업의 65.4%는 최근 3년간 생산·기술·연구 인력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 기업의 21.3%는 인력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연근무 등 업무환경 개선(28.3%) ▲높은 성과급 지급(25.7%) ▲학위 취득 지원(15.0%)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인재 확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일자리 불일치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기업의 49.9%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 원활한 생산 시설 가동, 대내외



고객 주문 대응 등을 위한 생산·기술·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학력별 필요 인력 규모는 학사 6800명, 석사 2500명, 박사 1400명 순이었다.

중견기업 일자리 문제 해소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연구개발비 세제지원(34.8%), 인건비 일부 보조(34.1%), 중견기업 이미지 제고(16.6%), 산업 분야 우수 인력 양성(11.3%),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 행사 개최(3.1%) 등이 꼽혔다.

반원의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팬데

믹 상황에서도 65.4%의 중견기업이 생산·기술·연구 인력 규모를 유지한 것은 기업가정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통제조업 인력 구조 변화,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 확대 등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종별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생산·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지원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중기부, 소상공인에 ‘희망회복 자금’ 준다

내달 3째주부터 ‘신속지원’
10월 중순부터 손실보상 접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 3째주부터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10월 중순 신청, 접수받아 빠르면 10월 말부터 실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과 관련해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강성천 차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상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제청 관계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

는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8월 첫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끝내 8월 셋째 주엔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로 지원금을 주고,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끝내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